현대사 질곡 속에서 피어난 '인동초'의 삶·정신 오롯이

DJ 탄생 100주년 기념, 다큐 '길위에 김대중' 지방 첫 시사회

2024년 1월10일 개봉 앞두고
지방 첫 투어로 '광주' 택해
DJ 정치역정 등 각별한 의미 담아

"어법상 '길 위의 김대중'이 맞지만 영화의 제목은 '길위에 김대중'입니다. 이 같은 제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200여 회에 걸쳐 강연한 인터뷰 내용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나는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라는 구절에서 착안해 영화의 제목을 정했죠."

기획을 포함해 10여 년만에 작품을 완성한 민환기 감독의 소감이다.

김대중의 민주평화 정신, 파란만장했던 삶의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VIP시사회가 내년 1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19일 광주 서구 CGV터미널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제작사 명필름(대표 이은), 시네마6411(대표 최낙용)을 비롯해 김양현, 박성수, 전자광 등 17명의 광주지역 영화제작 공동추진위원회가 참석했다. 영화는 2013년 김대중추모사업회가 기획, 민환기가 감독을 맡았으며 이희호 여사의 영상물 사용 허락 등을 통해 제작됐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이희호 여사와 교도소에서 면담하는 장면 등이 '최초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작품은 김대중이 목포상고를 거쳐 선박 사업으로 성공하고 정치인이 되는 일대기, 이후 미국 망명생활과 귀국 후의 정치 여정, 그리고 1989년 광주에 되돌아온 이야기 등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냈다.

이날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환기 감독은 영화와 광주투어의 의미를 언급했다.

"'길위에 김대중'은 최근 흥행 중인 '서울의 봄', 개봉 예정작 '노량' 과 함께 역사성에 천착한 작품입니다. 역사를 개념이나 이론이 아닌 이미지의 힘으로 보여주는 영화죠. 시민들이 근현대사 흐름을 담아낸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DJ정신과 그의 삶이 광주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지방 투어 첫 지역으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작품 속 '인동초' 김대중은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헤쳐온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목포에 출마, 몰표를 얻고 신민당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낙선시키려 온갖 음모를 획책하던 내용도 담겼다. 73년 납치사건, 80년 내란음모사건 등 숱한 역경 속에서도 김대중은 민주화와 세계평화의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작사 측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만큼 사료 분석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제작진은 1700여 시간에 달하는 영상 자료물을 검토했으며, 김대중도서관에 보관 중이던 오디오자료를 정리하면서 약 7개월에 걸쳐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은 대표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지역이 광주인데 김대중과 5·18 민중항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영화 속에서 정확하게 다루려 했다"며 "그동안 지인들조차 알지 못했던 김대중의 인간적인 면, 사상가로서의 모습 등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기를 맞아 그동안 왜곡됐던 사실들을 바로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 작품을 계기로 김대중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의 삶과 투철한 역사의식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

19일 광주시 서구 CGV터미널점에서 열린 다큐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이은 명필름 대표, 최낙용 시네마 6411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기 기념영화 광주지역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조희대 대법원장 5·18묘지 참배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 참석
"신속한 재판 진행" 당부

조희대(66·사법연수원13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공식 첫 외부활동으로 19일 광주를 찾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 준공식〈12월 18일자 광주일보 7면〉에 참석하기 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조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후 故 한승헌·홍남순 변호사 묘지와 무명열사 묘지를 둘러보고 추모관도 참배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광주 고등·지방법원은 별관 청사 신축으로 신속·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췄다"며 "광주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이 마련해 준 별관 청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을 가진 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연면적 약 1만2000㎡)은 2년 8개월여간의 신축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고 홍남순 변호사 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목포항, 전남 서부권 거점항으로 육성한다

전남도·관계 기관·전문가 등 참석 발전협의회 발대식

목포항을 부산항, 여수·광양항에 버금하는 전남 서부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기업인, 이해관계인 등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전남도는 19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항만물류협회장,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기업 대표,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항 발전협의회가 발대했다"고 밝혔다.

목포항 발전협의회는 목포항 활성화 정보 공유,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항만 마케팅 등 목포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학계, 연구원, 기업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서는 목포항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서남해안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국토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부두 유치 방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 유치 타당성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목포항 개발 및 주요 현안사항 등 정보 공유, 목포항 및 지역 핵심산업 육성 방안 협의,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 국비 지원 건의, 목포항 이용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 방안 협의 등 역할을 한다.

김영록 지사는 발전협의회 발대식 이후 진행된 도정 간담회에서 "발대식은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협의회 첫 출항을 알리는 자리"라며 "목포항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목포항이 전남 서남권에 경제적 부를 가져오는 항만,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항만으로 거듭나도록 물동량 증가, 항만 인프라 개선 등에 도정의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성과·역량 뛰어난 공무원 승진 최소 근무기간 5년 단축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이 현행 대비 5년 단축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받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조정해 총 5년 단축한다. 공무원 경력 채용의 경우,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중 못 받은 돈 회수 앙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용

나주시 공고 제2023-2092호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364-1번지 일원에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나주 도시관리계획 및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농지법」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0.
나 주 시 장

1.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가. 개최목적 :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나. 개최일시 및 장소 : 2024. 1. 10. 14:00 / 노안면 금안리 광곡마을 경로당 * 일시·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주요내용(부문별 계획-공원·녹지 및 유원지 계획(변경))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경	면 적(㎡) 변경후	비 고
신설	금성산 생태숲 유원지	금안리 364-1번지 일원	-	증)28,575	28,575	

2.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기 정	면 적(㎡) 변 경	면 적(㎡) 변경후	구성비(%) 기정	구성비(%) 변경	비 고
합 계		28,575	-	28,575	100.00	100.00	
관리지역	소 계	21,011	증)7,564	28,575	73.53	100.00	
	계획관리지역	-	증)28,575	28,575	-	100.00	
	생산관리지역	18,467	감)18,467	-	64.63	-	
	보전관리지역	2,544	감)2,544	-	8.90	-	
농림지역		7,564	감)7,564	-	26.47	-	

※용도지역 면적은 유원지에 한하며,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유원지만 시행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등급	규모 류별	규모 번호	규모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204	유원지-A	노안면 금안리 473-1번지 일원	일반도로	유원지A		진입도로

2)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금성산 생태숲 유원지	노안면 금안리 364-1번지 일원	-	증)28,575	28,575	-	

다.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합계	28,575	100.00	461	461	
시설소계	21,080	73.77	461	461	시설율:73.77%
-관리시설	9,742	34.09	461	461	
-휴양시설	10,215	35.75	-	-	
-운동시설	138	0.48	-	-	
-유희시설	985	3.45	-	-	
녹지용지	7,495	26.23	-	-	녹지율:26.23%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관계도서 : 계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12. 20. ~ 2024. 1. 3.
다. 열람장소 : 나주시 공원녹지과
라.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61-339-7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엔더블유(이하 갑이라 한다)와 더블유아일랜드 주식회사는(이하 을이라 한다) 2023년 12월 15일자 개최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갑) 주식회사 엔더블유 전기공사업(제 서울-06229호)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더블유아일랜드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제3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 양도대상 : 전기공사업(제 서울-06229호)

"갑" 주식회사 엔더블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8길 67(상계동)
대표이사 김 효 정 (010-2171-2084)

"을" 더블유아일랜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1길 78-14, 비동 (덕흥동)
대표이사 조 병 윤 (062-419-0011)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3천7백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0억 (현금34억)
010-3646-8700(직거래)